



### 고은 영역시집 '자아를 넘어' 美서 애독

108편의 선시를 모은 고은시인의 두 번째 영역시집 (Beyond Self·자아를 넘어)(Parallax Press 刊)가 미국에서 출간된지 한달반만에 외국시집으로는 선종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 영역시집은 80년대에 출간된 선시집 (뒤나)와 (작가 세계)에 실렸던 선시들을 선별 수록한 것. 이 (Beyond Self)의 인기에 힘입어 첫번째 영역시집 (The Sounds of My Waves·나의 파도소리)도 최근 재판을 출간했고, 미국 인디애나대학등 두 개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Beyond Self)도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새학기부터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연작시 (만인보)도 현재 영어 스페인어로 번역 중에 있고, (Beyond Self)는 곧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으로도 선보이게 된다. 베스트셀러였던 소설 (화엄경)은 영역이 끝나 출판사 섭외가 끝나는데로 미국에서 출간된다. 소설 (禪·선)도 조만간 영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은 작품의 영역화 작업은 김영무교수(서울대) 안소니 티그교수(안선재·서강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과 멕시코로 순회 시낭송회도 가졌던 고은시인은 "시낭송회 당시 미국 청중들의 반응이 무척 호의적이었다"며 "앞으로 계속 시와 소설의 영역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0년대 초반 창작과 비평사 주최로 미국 원로시인 알렌 긴즈버그와 함께 가진 시낭송회에서 긴즈버그는 시인 게리 스나이더를 꼭 만나보라고 권했다고 한다. 스나이더에게도 똑같은 당부의 말을 했던 긴즈버그는 지난해 말 타계했고 그의 타계 후 가진 순회 시낭송회에서 스나이더를 만난 고은시인은 "죽은 시인이 살아있는 두 시인을 만나게 해 준 것"이라며 "이런 인연은 흔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시인들의 활발한 국제교류는 우리 문학의 해외시장 진출과 문화적 완성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연 기자

## '우리들의 손길이 닿는 문화유산'

### 문화유산답사회 탁본전 22일까지 학교재화랑



○하남 선법사 암벽에 새겨진 마애약사불의 탁본. 그 자체가 한쪽의 문화유산을 연상시킨다.

최고의 조각을 자랑하는 지광사현묘담비에서 정경계 다가서는 운주사 석불두에 이르기까지 우리 손길이 닿는 곳의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문화유산답사회(대표 유홍준)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고 탁본의 아름다움과 의의를 되새기는 '우리들의 손길이 닿는 문화유산' 탁본전을 22일까지 인사동 학교재화랑에서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되는 작품은 총 52점. 5천년 역사를 거치면서 창조해낸 우리 선조들의 그림, 글씨, 조각, 문양 등을 탁본한 것들이다. 울주 반구대의 선사암각화와 예산 수덕여관 뒤뜰 바위에 새긴 고암 이용로의 20세기 문자주상은 시공을 초월한 탁본의 새로운 맛을 보여준다. 또 아름답기로 유명한 성덕대왕신종의 비천상, 연곡사 동부도의 조각 탁본 등에서는 정교한 조각의 맛을 여실히 살필 수 있으며, 하남 태평2년명 마애불 탁본은 그 자체로 한 폭의 불화라고 할 만한 명품으로 손꼽을 수 있다.

탁본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비문탁본, 봉암사지증대사비, 쌍계사진감국사비 등 최치원의 사산비명은 물론 북한에서 구입해온 묘향산 사적비 등에 새겨진 글자의 한획 한획에 멋과 맛이 살아나 서예감상의 즐거움을 줄 것이다.

유홍준교수(영남대 박물관장)는 "합부로 탁본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화재 훼손이지만 답사길에 무심히 지나쳤던 유물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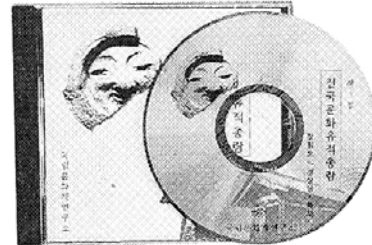
윤기석 기자

### 문화유적총람 CD롬 3집 완간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가 전국 문화유적에 대한 총람화·전산화 작업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제3집 '강원, 경상남·북도권'이 발간됐다.

이로써 제1집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5대광역시', 제2집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를 포함 총 3집의 전국문화유적총람 CD롬이 완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제3집에는 강원도 2천1백61건, 경북 6천1백48건, 경남 5천1백93건 등 총 1만3천5백2건의 유적에 대한 해설과 5천6백59장의 유적사진, 6백3장의 분포지도가 실려 있다. 유적명칭·종류·시대별 검색은 물론 어휘검색이 가능하며, 각 유적의 해설·사진·지도에 편집, 파일저장, 인쇄기능이 갖춰져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선택, 활용할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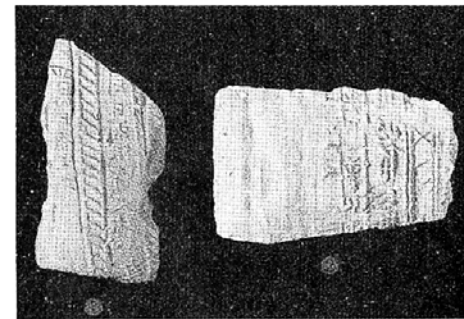
### 음성 중동리사지 간패사 "확실하다"

#### 청주대박물관 지표조사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음성 중동리사지가 지표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돼 조선초까지 존재했던 간패사(間袞寺)였음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청주대박물관이 지난해 10월중순부터 11월말까지 지표조사를 한 결과 밝혀졌다. 중동리사지는 사지의 규모로 보아 매우 큰 사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많은 의혹을 샀던 절터. 폐사후 5백여년간 방치 석탑의 자리장치를 비롯 범종, 향로, 불경 등이 일제시대이후 도굴로 훼손이 극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표조사 결과 많은 기와류와 자기 토기 등이 나왔으며, 일부 지역의 지하에서는 아직 인위적으로 파헤쳐지지 않은 건물지와 많은 유물이 남아 있다. 조사된 유물과 유구로 보아 이 사지는 나말여초에 창건돼 조선 초까지 존속했



○음성 중동리사지에서 출토된 명문기와. '간패사'로 공식명명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며, 사찰규모도 현재까지 알려진 1천평보다 훨씬 큰 3천평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대 지표조사단은 "간패사라고 쓰여진 기와편 발굴로 현재까지 알 수 없었던 중동리사지의 명칭이 간패사지로 공식명명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수확"이라며 "사지의 정확한 내역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발굴조사와 현재 산재해 있는 유물의 보호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불심시심 <116>

#### 선선을 왜 부러워 해

轟削奇岩響濤聲 (촉삭기암소향제) 하늘과 가드런히 뽀죽이 짝인 바위  
披襟清嶺上雲梯 (피금청소상운제) 옷깃풀어 맑은 위파람으로 구름사다리 오르다  
(피금청소상운제) 하늘에 드리운 듯 별 머릿가에 가깝고  
天垂列宿頭邊近 (천수열수두변근) 바람따라 가는 기러기 발 밑에 나죽하다  
(풍추雁雁脚下低) (풍송귀안각하저) 늘어선 못 뒀는 그림으로 열렸고  
族立群壘開繪圖 (족립군만개회화) 거꾸로 달린 폭포는 유리알을 흘날리다  
(倒懸瀑飛散玻璃) (도현비폭산파라) 신선된 안기생이라도 무엇이 부러우랴  
(安期羽化何須羨) (안기우화허수선) 지척의 거리에 청정한 도시 길도 뚜렷한데.  
(咫尺清都路不迷) (지척청도로불미)

팔허(括虛·1720~1789)대사의 '속리산'이라는 시이다. 대사의 이름은 취여(取如)이고 팔허는 호, 속삭이 서서였다. 13세에 출가했는데 출가전에 이미 유가 경전을 모두 읽었다 한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대성할 것을 예언했다 한다.

대사가 자신의 호에 대해 설명한 글이 문집에 '팔허'이라 하여 남아 있는데, 대략 지방의 허공을 총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속리산에 올라 산정에서 바라보는 사실경이 잘 나타나 있다. 정상은 하늘과 닿아 있다. 그것도 기묘묘하게 깎인 봉우리들이다. 올라오는 기분이 얼마나 좋았으면 옷깃을 풀어헤치고 휘파람도 질로 불리는 상황이라 했을까. 정상에 올랐으니 머리 위로 는 잠잘 듯이 펼쳐져 있는 발 들이고 발 아래로는 기러기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다. 이 정상이 이렇듯 상하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으니, 작자가 자신이 허공을 총괄하는 팔허라 했음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수사성이기도 하다. 다시 시선을 산 아래로 돌리면, 발 밑에 펼쳐지는 못 산은 한쪽의 산수화로 열려 있고, 거꾸로 매달린 폭포는 유리알을 하얗게 흩뿌리고 있다.

이 시의 구도는 산정을 중심으로 하여 상하의 공간을 완벽하게 배치하고 있다. 머리 위에는 못뚝이, 다리 아래는 남새들이다. 높은 산은 그림이고 낮은 폭포는 유리알이다. 상하의 모든 자연이 나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 그러니 여기가 바로 신선이다. 옛날 신선이 되어 갔다는 안기생인들 지금 이 상하에서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 거조암 5백나한 유럽인들이 천은사 금동불감 유럽인들이

#### 99년 6월부터 독일·스위스 도시순회

영천 거조암 영산전에 봉안돼 있는 5백나한상, 지리산 천은사의 나용화상일불 및 불감이 99년 유럽인들이 떠난다. 나한기도도량으로 유명한 거조암 영산전에 안치돼 있는 5백26위의 석조나한상 중 5위를 비롯 우리 문화유산 1백건 3백여점이 99년 6월부터 2년간 독일과 스위스의 도시를 순회하며 유럽에 선보이게 될 것이다.

이 전시회는 독일의 루어문화재단이 청동기시대부터 19세기에 이르는 한국의 주요 문화재들을 유럽에 알리고자 기획한 '한국의 혼을 찾아서'라는 특별 순회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루어문화재단이 전시회를 위한 문화재 대여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지난해 문화재단 문화위원들로 구성된 전시자문위원회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문화재를 선정했다. 출품할 문화재는 공·사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 사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중 대여 가능한 것으로 이뤄진다.

이 전시회는 99년 6월3일부터 11월7일까지 독일 에센의 첫전시회를 시작으로 2000년 1월중순부터 3개월간 독일 베를린, 5월중순부터 3개월간은 스위스 취리히 등을 순회하며 개최될 예정이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요강

1989년 설립된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에서는 범음·범패 요잡 및 작법 등 불교전통의식을 보다 높이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오니 뜻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입학 을 바랍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合掌

- 모집학과
 

학 과	교육내용	모집인원	비 고
초급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1년
연구 과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 응시자격 : (다음 사항 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 1) 수계 득도한 자
  - 2) 오계를 수계한 자
  - 3) 각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 4) 신심이 돈독한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 2) 수계증명서 사본
  - 3) 추천서
  - 4)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기간 주 4회(일~목)
- 접수일자 : 1998년 2월 9일 ~ 3월 7일 (개강일 '98년 3월 9일)
- 약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